

지역 소식통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행정소송' 승소

# 월명공원 자연경관 보존된다

군산시는 2016년도 2월 신중동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및 정비 완료된 지역 인근의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의 건축허가 신청지역은 군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내 모든 건물을 철거 정비완료 후 재해예방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테마형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인접한 토지다. 시는 도로법 등 관련법상 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가 없어 건축법 규정에 맞지 않음 뿐만 아니라 월명공원 보존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

야 할 곳으로 시인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2016년 2월 24일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원고는 지난해 3월 8일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의 선고결과,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결로 군산시가 승소함에 따라 월명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 원고는 군산에서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산책로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불법으로 무단 형질변경과 공원에 식재된 수목을 임의로 훼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 이에 시는 물품관리법,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무단 형질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 시 개인의 사익과 공익의 비교 형량을 따지는 경우 공익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건축경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 개정면,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사업 '호음'

군산시 개정면이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환경 정비사업'과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정면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사업으로 40여명의 참여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지역환경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손질이 닿지 못했던 등산로 주변과 마을 외진 곳까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또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경로당 및 저소득층의 가정을 방문해 가사서비스와 말벗, 가스·전기·난방점검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시, 왕궁리유적전시관 자원봉사자 모집

익산시 왕궁리유적전시관은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와 백제왕도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4일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는 왕궁리유적과 전시관을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게 관람방법과 전시자료에 대한 안내, 전시관에서 이루어지는 특관 직기 체험과 발굴 체험, 인강과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도와주고 필요할 경우 왕궁리 유적과 전시관의 전시해설을 담당하게 된다.

자원봉사 참가 자격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70세 미만자로 왕궁리유적과 전시관에 관심이 있고 해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과 세계유산 왕궁리유적과 전시관에 대한 기본교육 거쳐 3월부터 실무에 배치되어 12월까지 활동한다.

/익산=정양원기자

## 나운3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24일까지 수강생 모집

군산시 나운3동이 새로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민들을 찾아간다.

제43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기존 8개 프로그램에 기체조·명상반과 리안댄스 초급반을 신설, 오는 24일까지 수강생 모집을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신규 개설된 기체조·명상반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는 군산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바쁜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자기명상의 시간과 유연성을 길러 주는 기체조를 함께 접할 수 있어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기자

## 전북농업기술원, 벼 종자 생산계획 확정

원종신동진 등 8품종 68톤 · 원원종 신진백 등 8품종 0.8톤

전북농업기술원에서는 2017년도 벼 종자생산에 관한 종자사업소 관계자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종자담당자, 보급종 생산자 대표, 국립종자원 국립식량과학원 담당자 등 명이 참석하여 종자생산 협의회를 갖고 원종은 신동진과 신품종 보탈할 등 8품종 68톤을 원원종은 신품종 신진백 등 8품종 0.8톤을 생산하기로 확정하고 보급종 생산공급 확대와 안정적 종자 생산을 위해 2016년 생산량의 118%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018년에 공급할 보급종은 조생종 350톤, 중만생종 3,250톤과 탄력공급분 300톤 등 3,900톤을 생산·공급기로 하였고 2019년에는 종자수량의 70%까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장영직 담당은 농업인들이 종자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만큼 매년 보급종 종자 공급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종자생산공급체계를 확립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익산지역에 공급되는 보급종은 2,311톤으로 종자 소요량의 39% 수준에 해당되며, 지난해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 수확이 늦어지고 신동진 품종 등 우리도 주요 품종에서 수확량이 다수 발생하여 보급종 품격에 들지 못하여 종자량이 부족하므로 아직까지 종자를 확보 못한 농가는 서둘러 종자를 확보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정양원기자

## 군산시, 구제역 차단방역 소 7700여두 긴급 백신접종 완료

군산시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소 7700여두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군산시는 지난 8일부터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을 시작해 소 230여 7700두에 대해 1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백신 접종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예방백신을 전량 무료로 배부하고, 백신접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접종대상 가축 전체에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했다.

또한 접종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실제 접종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토록 했다. 한준수 군산부시장은 "이번 긴급 백신접종이 구제역 사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인 만큼 노력되는 개체가 없도록 꼼꼼히 백신접종을 실시했다"며 "농장 소독, 예찰 등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인 만큼 노력되는 개체가 없도록 꼼꼼히 백신접종을 실시했다"며 "농장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소방서, 스마트폰 GPS 활용 홍보

군산소방서가 해상과 산악 등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스마트폰 GPS 활용 홍보에 나섰다.

현재 구조시스템은 신고자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으로 119에 신고하면, 휴대전화 기지국 반경으로 상황실에 표시 돼 최대 1~2km 까지 위치가 발생한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주소를 확인하여 정확히 찾아가지만 해상이나 산악 사고 시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조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위치파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GPS 기능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 시스템은 신고자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위치정보(GPS)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지도앱을 이용 GPS 위치정보를 알려주거나, 안드로이드 or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119신고' 앱을 설치 후 간단한 조작으로 현재 GPS 위치정보를 119상황실로 전송할 수 있다.

GPS 위치정보를 입수한 구조대는 최단시간 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현장에 도착할 수 있고, 구조 임무수행간 신고자와의 거리 및 도착 예정시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조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스마트폰 기능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며 "GPS 기능은 내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든든한 위치알림기가 되어 줄 것이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정현울 익산시장, 현안사업 추진 예산반영 요청

정현울 익산시장은 익산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만나 적극적인 예산보증을 요청했다.

요청한 지역현안 사업은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정현울 익산시장은 시의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청권보다 10년이나 늦게 건설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동시착공 당위성과 제19대 대선공약으로 전북권 광역

전철망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의 반영을 요청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산업분야 중심의 익산 미래발전기 발목을 쥘문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 노력해주는 만큼 시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를 위해 서민의 삶에 밀착되는 행정을 펼치고 앞으로도 익산의 미래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 익산소방서

### 대형소방대상물 ·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익산소방서(서장 김석용)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더불어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이후 대형소방대상물과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용접공사 등 화재위험작업 시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기 위해 지난 10일 S&H글로벌과 (주)하림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했다.

익산소방서는 대형 소방대상물 화재 예방 안전관리 추진의 일환으로 ▲대

형화재취약대상 건축주 및 방재살에 대한 소방관서장 및 부서장 방문교육 ▲용접·용단 화재취급 관계자 등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교육사항으로는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 행위 시 사전 소방안전관리자 승인(입회)에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원인 및 용접작업 화재사례 등을 전파할 것으로 전해진다.

/익산=정양원기자

# 부안

으로

#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 扶來滿福